

# 조선업계, 해양플랜트 수주 탄력... LNG선 이후 새 성장동력

**삼성중공업** 아프리카 선주와 협약  
계약금 8694억... 작년 매출의 8.8%

**HD현대중공업** '턴키 솔루션' 집중  
올해 초 원유운반선 등 1.7조 실적

**한화오션** 서아프리카 FPSO에 몰두



한화오션이 건조한 세계최초 FLNG.

/한화오션

국내 조선업계가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LNG(액화천연가스)선 슈퍼사이클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해양플랜트 사업이 부상하는 모습이다. 특히 아프리카·미국·동남아 등 주요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 확대에 따라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고유가 흐름과 글로벌 에너지 안보 이슈가 맞물리며 해양플랜트 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FLNG의 수요가 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정식 LNG 플랜트 대비 인프라 구축 비용이 적고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어서다.

LNG선의 수요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있으나 올해 상반기 LNG운반선 발주는 총 8척에 그쳐 전년 동기 65척에 비해 급감했다. 미국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를 중심으로 LNG 수출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수요 확대 요인

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따르나 업계에서는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의 수주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책적 지원 흐름도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K-조선사·기자재사 상생 간담회'를 열고

업계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LNG선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을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삼성중공업은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지역 선주와 '해양생산설비 본 계약 체결 전 예비작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은 8694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8.8% 규모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모잠비크 코랄 북부 가스전 FLNG 관련 건으로 알려졌다. 본 계약이 체결된다면 총 수주 규모는 24억달러(약 3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발주된 FLNG프로젝트는 총 10기로 파악되며 이 가운데 5기를 삼성중공업이 수주했다. FLNG의 경우 1대당 수주금액이 2조~3조원에 달할 정도로 고부가가치 설비로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관측된다.

HD현대중공업도 해양부문 강화를 위해 해양플랜트 전 주기를 아우르는

'턴키 솔루션'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게이트 에너지와 해양플랜트 EPC(설계·조달·시공) 전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통합 공급체계 구축에 나섰다. 올 초에는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원유운반선 2척, 중동발주처로부터 해상플랫폼 상부 구조물 1기를 수주하며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한화오션은 서아프리카 심해에 특화된 FPSO(부유식 생산 저장 하역 설비)를 앞세우고 있다. 해당 선박은 미국 선급 ABS와 프랑스 선급 BV로부터 공식 인증을 획득하며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양플랜트는 일반 상선보다 단가가 훨씬 높고 규모나 기술 난이도 면에서도 고부가가치 선박에 해당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 변화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향후 조선사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LG엔솔, 美 ESS 신규수주... 북미입지 확장

**ESS 시스템통합 자회사 베테크**  
산타테레사 태양광·저장 프로젝트  
600MW 배터리 ESS 시스템 공급



LG에너지솔루션 전력망용 ESS 배터리 컨테이너 제품.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ESS(에너지저장장치)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미국 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중 하나에 ESS공급사로 참여하며 북미 지역에서의 입지를 넓히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시스템통합(SI)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베테크가 D.E. 쇼 리뉴어블 인베스트먼트(DESRI)와 엘파소 일렉트릭(EPE)이 공동 추진하는 '산타테레사 태양광·저장 프로젝트'에 600MW(메가와트) 규모 배터리 ESS 시스템을 공급한다.

베테크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함께 자체 에너지관리 소프트웨어 에어로스를 공급하고 장기 서비스 계약을 통해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가

지 수행한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ESS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6월부터 양산을 시작한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산 LFP(리튬인산철)배터리가 적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잇따른 신규 수주를 통해 북미 ESS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24년 11월에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최대 8GWh(기가와트시) 규모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

다. 같은해 12월에는 미국 재생에너지 인프라 펀드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과 7.5GWh 규모 ESS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베테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22년 미국 ESS업체 NEC에너지솔루션 지분 100%를 인수하며 신설한 법인이다. ESS사업 기획, 설계, 설치, 유지·보수 등 전 단계를 아울러 고객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박재홍 LG에너지솔루션 베테크 대표는 "청정에너지 기술을 전력망에 도입해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으며 미국산 배터리 시스템을 활용해 이를 실현하게 된 점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에너지저장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시기이며 우리는 DESRI, EPE와 협력해 미국 ESS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 금호석화 'R&D 체제' 중장기 전략 구축

친환경 자동화 솔루션 등 강화  
글로벌 수요침체 등 대응 나서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글로벌 수요 침체와 중국산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R&D 확대에 나서고 있다.

15일 석화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친환경 자동화 솔루션 강화, 바이오·지속가능소재 확대,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전환 등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재도약을 위한 초석을 견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금호석화는 중장기 전략으로 R&D 중심 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부가 제품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선도 제품 상업화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전기차의 고성능타이어에

주로 사용되는 SBR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에 따른 일시적 수요 둔화세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 맞춤형 제품(타이어 수명 증가, 연비 개선, 에너지 저감)을 개발하여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사탕수수 기반의 바이오 원료에 핵심 고기능화 기술을 접목해 친환경과 타이어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신소재 합성고무의 파일럿 제조 기술도 확보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집중한다. 에폭시수지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친환경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무용제·수용성 에폭시 수지, 바이오 기반 저탄소 에폭시수지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 LG전자, 핏앤맥스 냉장고 최대 33% 할인

31일까지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기획전

LG전자가 오는 31일까지 자사 온라인몰에서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핏앤맥스 냉장고 기획전을 진행한다. 15일 밝혔다. 세트 모델은 최대 33%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다양한 결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핏앤맥스는 '제로 클리어런스 힌지'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냉장고 문을 여닫는 부품을 본체 안쪽으로 회전하도록 설계해, 벽면과 단 4mm만 띄워도 문을 자유롭게 열 수 있다. 별도 시공 없이도 빌트인처럼 깔끔한 주방 연출이 가능하다.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냉장고, 김치냉장고, 컨버터블 냉장고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예컨대 613리터

냉장고와 480리터 김치냉장고를 결합하면 국내 최대 용량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다.

기획전은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핏앤맥스 냉장고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핏앤맥스는 LG전자 고유 기술인 '제로 클리어런스 힌지'를 적용해 벽면으로부터 단 4mm만 띄우면 문을 자유롭게 여닫을 수 있는 제품이다. 별도 시공 없이도 마치 빌트인 냉장고처럼 공간 일체감을 살릴 수 있다.

제로 클리어런스 힌지란 냉장고 문을 여닫는 부품 '힌지(Hinge)'를 기존과 달리 본체 안쪽으로 회전하도록 설계, 벽면으로부터 4mm의 틈만 띄워도 냉장고 문이 벽에 부딪히지 않게 만든 LG 전자만의 특화 기술이다.

/이혜민 기자 hyem@

##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재생에너지 공급

남동발전과 구매 계약... RE100 속도

기아가 주요사업장에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확대하며 RE100 추진에 속도를 높인다.

기아는 지난 2월 체결한 한국남동발전과의 재생에너지 구매계약(PPA)을 통해 기아 국내사업장 중 최초로 경기 오토랜드 화성에 최근 재생에너지 전력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PPA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전력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아는 한국남동발전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연간 약 1215MWh 공급받게 되며, 이는 58.3kWh의 배터리가 장착된 EV4 스탠다드 모델을 2만회 이상 완충할 수 있는 양이다.

기아는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040년까지 RE100 달성을 목표로 국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전력 자체발전 설비 구축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기아는 올해 하반기 중 국내 오토랜드 3개소에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지속 확대해 총 공급량을 연간 약 61GWh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또 이미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국내 및 중국 사업장에 더해 향후 미국, 인도 사업장 등에서도 PPA를 통해 전력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아는 올해 중 국내, 미국, 인도, 멕시코, 슬로바키아 사업장에 합산 38MW 규모의 태양광 자체발전 설비를 설치해 모든 생산 거점에서 태양광 발전을 가동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까지 설비 규모를 62MW로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기아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비전 실현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외에도 ▲전동화 전환 ▲차량 내 재활용 플라스틱 적용 확대 ▲협력사 탄소 감축 교육/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차상근 기자 skc8472@